

현재 알려진 탈북자를 돕는 단체는 대부분 기독교목사 또는 교회기구가 운영하는 <기독교 탈북 선교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북한으로 부터의 탈출을 돕는 것은 위험도도 클 뿐 아니라 비용 또한 상당하며 특히 2020 년부터 그동안의 탈북 루트로 사용되었던 함경북도 특히 두만강변 중국과의 국경을 마주한 지역의 대규모 철책작업과 ‘코로나 19’의 유입을 막는 중국당국의 방역대책 강화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0 년 이전 이미 탈북을 한 후 중국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가 아닌 대부분이 불법체류로서 당장의 생계 및 생명유지에 급급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및 인건비를 지급 받는 중노동과 매춘과 심지어는 인신매매에 의한 현지첩으로 전락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겪는 공통된 입장이며, 운이 좋아서 중국 현지에 합법적인 절차의 체류를 하고 있는 남한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을 할 수 있다면, 남한 또는 제 3 국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비밀장소에 은둔을 하다가, 선교사들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데로 조선인 또는 중국인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등의 동남아국가로 밀입국이 가능한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까지 안내해 주는 조건으로 탈북자들의 한국 및 기타국가로의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과 같은 탈북 중국불법 체류 북한인의 수는 약 3 만 ~4 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1 년부터는 중국은 물론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폐쇄와 내부통제강화로 인하여, 이전과 같은 탈북자들의 제 3 국 탈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탈출에 따른 높아진 위험도로 인하여 탈출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거 2 천 ~3 천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5 천 ~1 만달러까지 높아졌지만, 그나마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1 년 한해동안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고작 2 명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탈북자를 지원한 단체는 <두리하나 선교회 / 이사장 김진홍

목사 / <<http://m.koreatimes.com/article/20051207/285227>>

<http://m.koreatimes.com/article/20051207/285227>

>로서, 선교회의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한국거주 천기원 목사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두리하나 국제학교 /

<<https://koreanaztimes.com/nmnews/794934>>

<https://koreanaztimes.com/nmnews/794934>>와 미주지역 Washington D.C.에 본부를 발족하고

<두리하나 - USA>를 중심으로 ,

미국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연회 조영진감독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두리하나 국제학교 /

<https://m.facebook.com/durihanaschool/posts/387790141373182?locale2=zh_CN>
<https://m.facebook.com/durihanaschool/posts/387790141373182?locale2=zh_CN>

, 탈북자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두리하나 선교회 워싱턴지부 / 워싱턴 성광교회 시무 임용우 목사

/ <<http://www.christiantoday.us/667>> <http://www.christiantoday.us/667> >

등의 활동은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두리 선교회>등의 진실된 기독교단체들이 있는 반면, 조심해야 할일은 중국옌벤...등지에서 숨어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며 생계를 도와주면서 서울행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북한에 지하교회를 세우고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들을 구제하고 있다면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럴듯한 각본을 구성하여 사회각층과 후원자 만여명으로 부터 한화 이십억원을 사기편취하여 한국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예랑선교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진기홍목사>의 전대미문 사기극등도 지원에 앞서 검토해야 될 중요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에서 쉽게 접촉하며, 탈북자의 근황및 지원방법등을 의논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RFA (Radio Free Asia : 자유아시아 방송)

2025 M Street NW Suite 300 , Washington D.C. , 20036 DC / Phone : (202)530 4900 / eMail : nk@rfa.org <<mailto:nk@rfa.org>> / Editor : 양성원 >있으며 ,

북한을 탈출후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생계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북한 인권 시민연합 / 이사장 윤현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 Phone : (02)723-1672 / www.nkhr.or.kr

<<http://www.nkhr.or.kr>>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 대표자 권은경 / www.nknet.org <<http://www.nknet.org>> / 서울 중구 삼일대로 /

Phone : (02)723-6711 / eMail : nknet@nknet.org <<mailto:nknet@nknet.org>> >

<좋은 벗들 / 이사장 법륜스님 / 서울 서초구 효령로 / Phone : (02)587-8996 /

www.goodfriends.or.kr <<http://www.goodfriends.or.kr>> > <탈북 난민 유엔청원
운동본부 / 본부장 김 상철 / www.kidok.com <<http://www.kidok.com>> /산하에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탈북귀순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북한현지를 통하여 또는 중국으로 이미 탈출한 탈북자들을 보호 또는 생계지원을
해주면서, 중국으로 부터 제 3 국으로 탈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외의, 이미 탈북을 한 후
한국 또는 기타 제 3 국에 정착을 한 해외탈북자를 지원하는 해외 유관단체로서

1).일본 : <북한 민중구조 긴급 행동 네트워크 (RENK)> <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 <북한 난민 구원기금>

2).벨기에 : <국경없는 인권회>

3).미국 : <북한 인권위원회> <북한난민 인권재단 (EAGIS)>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 : 참고로 이 모임은 Obama 정권 당시 북한에 2 년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Kenneth Bae 가 대표로 있음 >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선우 회장께서 지난 1 월 미팅을 통하여 발히신 바와
같이 탈북자를 돕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방침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이의 집행을
위하여는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바, 일정한 재원이 모이기 전까지 일단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과거
미국정부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자의 구출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으로 보냈던 것 같이, 미국행정부의 유관부서를 파악하여 그들과의 접촉을 꾸준히 유지하며
<Biden 행정부>가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잦은 이메일등의 교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